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5개 금융공공기관, 금융시장에 10.2조원을 별도 편성

□ SOC, 에너지, 금융 관련 34개 공공기관은 금융기관 투자를 9조원 확대하고,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금년보다 7.1%p 높이는 내용의 '09년도 대통령 업무계획을 발표함.

○ 305개 공공기관 중 34개 주요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투자규모의 약 7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271개의 공공기관은 '09.1.5까지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.

□ 금융위 소관 5개* 금융공공기관은 '09년중 총 69.7조원(08년 계획 58.7조원 대비 19% 증가)을 시중에 공급하고, 12.4조원(08년 계획 8.1조원 대비 53% 증가)의 보증을 추진하기로 함.

* 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자산관리공사, 주택금융공사, 예금보험공사

○ 유동성 확충을 위해 기업(20조원)과 가계(8.7조원)에 28.7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며, 녹색성장산업, 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투자에 41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임.

○ 환승론 보증, 주택 보증, 학자금 대출 보증 등 저신용층 신용보증에 11.9조원을 공급,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촉진을 위해 ABS 신용보강 등으로 0.5조원을 공급

□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10.2조원(08년 계획 5.4조원 대비 88.8% 증가)을 별도 편성하여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해 나갈 계획임.

○ 은행자본확충펀드 출자, 부실채권인수,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고,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여 직접금융시장 기능을 정상화 촉진, 부실 금융기관을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임.

□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, 내년에 조기 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예정임.

(금융 공공기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-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, 5개 주요 금융공공기관, 12/30)